

구세주가 내리는 이슬, 감로는 누구도 모방 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의 5대 공약은 오늘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의 구세주는 사람을 살려둔 채로 마귀만을 죽여버리는 능력의 보유자다

영생의 역사를 하는 곳은 감로이슬성신이 매일 내려야 됩니다. 이슬성신이 안 내리면 가짜입니다. 또 영생을 주는 사람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마귀새끼가 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만들겠습니까. 인간 속의 주체영이 되는 마귀의 영을 사람은 살려둔 채로 죽여 버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초창기에 5대공약을 했죠?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고.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겠다고. 여름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고. 또 우리나라에 여름장마만 못 지는 것이 아니라 풍년도 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풍년을 들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더듬어 봐도 이제 50살 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나라는 2년 내지 3년 만에 흉년이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로 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로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본한테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죠? 36년간 농사 지어서 쌀을 일본에 다 바치고 먹을 쌀이 없어서 늘 굶주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흉년이 안 들고 풍년 들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백성들은 굶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한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이 호심탐탐 기회만 있으면 전쟁 일으키려고 백만 대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백만 대군을 먹여 살리려면 김정일로서는 풍구멍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백성들이 굶어서 수백만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군량미를 따로 빼어가면서 군대를 백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한을 침공해서 남한을 점령하여 무려 통일하려는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을 침공하여 군의 힘으로 통일을 시켜 남한에 있는 쌀로 굶고 있는 이북사람들을 전부 먹여 살리려고 김정일이 여러 가지 계략을 꾸몄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서해안 쪽으로 해군을 내려보내어 시도를 했었지만 상대가 안 됩니다. 이번엔 두 번째 도발을 한 것도 역시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이북의 군함들이 두 대가 왔는데 다 파괴되고 39명이 죽었습니다. 아군은 4명이 죽었습니다. 39명하고 4명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김정일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남한은 계속 풍년이지만 북한은 계속 흉년이 들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일으킬 수 없는 것은 군인들을 먹여 살려야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 고민에 빠져 있고 완전히 탈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북을 계속해서 흉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도 20년 넘도록 흉년이 들었고 금년도 이남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북에는 비 한 방울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흉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북이 힘을 못 쓰도록 하니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능력이 있어야 구세주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능력이 있어야 전쟁도 못 일어나게 하고, 풍년 들게도 합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이 사람이 여름장마도 못 지게 하고 태풍도 못 불어오게 하고 풍년 들게도 하고 또한 전쟁도 못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북에서 수백만 명씩 굶어죽

고 있는데 김정일이 백만 인민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쳐들어왔자 전멸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남에는 무기가 신무기로 무장

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새끼처럼 물러와도 기관총과 같이 그냥 갈기 때문에 시체를 만듭니다.

김정일이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이남의 전투력과 실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이남을 침공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못 일어나게끔 전부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승리제단에 내리는 이슬은 다양한 색깔로 내리기 때문에 모방을 할 수가 없다

오늘날 이 사람의 설교와 녹음한 테이프를 빼다가 사이버 종교에 갔다주니까 이현석이가 그것을 열심히 듣고 그대로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암만 이슬성신을 내리려고 애를 써봐도 안되니까 이슬성신의 사진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진기에게다가 광선을 집어넣어 뿌옇게 찍혀 나오는 것을 이슬성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승리제단에서는 갖가지 색깔로 이슬성신이 내리죠? 빨강계 녹색으로 보라색으로 감로이슬성신을 내리는 것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세주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 전지전능한 능력자가 구세주이지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감로이슬성신이 갖가지 색깔로 내리게 하는 것은 모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광선을 집어넣어가 지고 찍는 것은 허영계 부형계 찍혀 나오긴 하지만 색깔 있는 이슬성신 사진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22년의 역사를 하면서 갖가지 기적을 다 행하였습니다. 단상에서 설교하다가 이 사람이 불덩어리로 변해 설교를 하니가 새색시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불덩어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무서우니까 그냥 기겁을 하고 도로 문을 열고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덩어리로 변신하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왔지, 불덩어리 모습을 보여주고 놀라게 해서 도망가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가 없어서 변신하는 것을 멈췄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가고 죄인은 뜨거워서 못 견디고 의인들은 말할 수 없는 쾌락과 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빛이므로 죄 없는 사람만 그 세계에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이지, 죄 있는 사람은 뜨거워서 못 견디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을 가려면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마귀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귀를 기울이고 그런 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바쁘고 새색구 키우기가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들을 겨를이 없습니다.

시간 여유가 많고 생각이 멍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여기가 어떤 곳인가 저기가 어떤 곳인가 귀 기울이다가 그대로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 소리에 쫓겨 빠져 지옥 불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당 가는 길을 가면서 끝까지 천당을 가자,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다가 마귀가 유혹하는 데에 넘어가면 그 좋은 천당에 못 갑니다.*

2002년 7월 15일 말씀 중에서

군인으로서 일동 중·고등학교를 세우다

낮에는 군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이면 부대 근처 마을의 민간인 학생을 쉬는 날도 없이 가르쳤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짧은 청년일지라도 피곤이 겹치고 잠이 부족하여 몸이 점점 약해져 갔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부족한 잠에서 깨어나 5 리나 되는 부대까지 뛰어 갔다.

어떤 날, 선생 집애 놀러왔던 제자들이 이 사람이 새벽에 일찍 출근하느라 잠자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베개에 피범벅이 된 그 광경을 보고 베개를 붙잡고 우는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던 다음 얼마 지나지 않

조학성님의 발자취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봉사와 희생생활

로 민간인 학생을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이곳에 들렀던 미군 5군단 소속 공병장교 존(John) 중령이 이 광경을 천막 밖에서 쫓 지켜보고 자신도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렸던 모양이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니 그때까지 기다렸던 미군 장교가 하는 말이 "교실 안에서 벌어졌던



일동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 공부를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는 등, 어떤 대가나 명성을 바란 것이 아닌 희생과 봉사의 생활로 일관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널리 듣게 되어 국회의원 출마를 중흥반 앞이나 단호히 거절하였다

아שר였다. 어느 때와 같이 밤늦게까지 민간인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도중에 갑자기 코피가 터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몇몇 학생이 우리가 따뜻한 식사 한 번 대접하지 못했는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오셔서 우리 같은 불우한 학생들을 위하여, 배움의 시기를 놓친 학생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공부를 가르치시는 것 하며, 환경도 좋지 않은 천막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정열을 쏟아 부어주시는 선생님이나 너무나 불쌍하다면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일시에 온 천막 안이 울음바다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광경을 쫓 지켜보았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당신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하는 일을 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싶소."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다른 소원이 있었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배움 기회를 놓쳐버린 이 불우한 학생들을 가르칠 교실이 필요할 뿐입니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 입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말이 나오니까 "당신 개인적인 소원은 없느냐?" 하며 다시 물었다. "나 개인에 대한 소원은 없습니다."고 답변하였다. 그 미군은 "한국에도 이런 훌륭한 청년이 있나니....."

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하였다. 이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미국인이거나 한국인이거나 순수한 감정은 다 마찬가지로 느꼈다.

결국, 존 중령은 이 사람의 열정과 희생에 감동이 되어 자신의 상관인 미 8군 사령관에게 건의하여 학교 교실을 짓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일동 중·고등학교의 모체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였고,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손 장로라는 사람이 학교를 가로채려 음모하다

새 학교가 설립되어 좋은 일들로 가득차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줄 알았다. 그런데 일동의 유지이며 의사인 일동장로교회 '손 장로'라는 자가 이 학교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야심으로 28사단 고위 장교들을 매수하여 이 사람을 OBC교육을 받게끔 광주로 보냈다. 그런 다음 그 틈을 이용해 이 학교를 사립학교로 바꾸어 보려고 포천

지방 유지들과 공모하였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을 들은 이 사람은 OBC교육을 끝내고 돌아와 당시 이익을 경기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과 지방 유지들을 직접 찾아가 정황을 설명하고 강력히 주장해서 공립학교로 만들어버렸다. 자신의 사리사욕과 명예욕을 채우려는 부도덕한 사람들의 전모와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공립학교를 만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전성이 희생과 봉사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명성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 주변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널리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일동의 유지들이 이 사람을 직접 찾아와서 우리 포천 군민 전체가 땀땀 땀 합세하여 국회의원 당선을 밀어줄 테니 출마라는 권유를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에는 후호도 그런 헛된 명예욕이나 권력욕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에 일언지하에 거절하여 버렸다. 나중에는 이 사람 부대의 사단장에게도 건의하는 바람에 사단장실까지 불려갔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성취한다는 생각을 심어 주었다

그들은 20대 젊은이에 어울리지 않게 사회와 국가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젊음을 불태우는 것을 보고, 국회의원

출마를 권하였으나 이 사람은 일언지하에 "내가 겨우 국회의원 자격밖에 되지 않습니까?"하고 되레 물으니 그들은 무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던 것이다. 그렇다고 진짜 무슨 세상적인 더 큰 야망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해야 자꾸 입장 곤란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이다.

이 사람은 불우하고 처지가 곤란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것이 없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뒤흘이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뒤흘다 하더라" 하는 시조를 즐겨 말하였고,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하는 영어의 격언도 가르치며, 불가능이 없다고 항상 강조하였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마음을 풀고 목적을 세우고 노력을 하여 성취한 이 사람의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것이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교과서를 들고 "오늘은 몇 과 할 차례냐? 어제는 어디까지 했느냐?"는 식으로 해 보지 않았다. 백문 하나만 가지면 교과서, 참고서 필요 없이 영어, 수학, 국어, 국사, 물리, 화학, 지리 등 모든 과목을 거침없이 가르치므로 이 사람의 별명이 그 당시 '백과사전'으로 불릴 정도였던 것이다.

이 사람은 공부를 시킬 때, 그날 배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외운 때까지 군대식으로 엄하게 가르쳤다. 제대로 공부 안 된 학생은 될 때까지 붙잡아 놓았다. 이렇다보니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래서 "당시 군인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중·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시험에 70% 이상이 합격이 되었다"면서 큰 이슈가 되어 신문에도 크게 난 일이 있었다.*